

# 국경없는 교육가회 연간보고서

Educators Without Borders  
Annual Report

2018





(표지 흑백 인쇄)



## 연간보고서 발간사

2018년 한 해가 지났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된 후 빈곤 종식, 복리 증진, 교육 보장 등의 목표달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 목표 달성과 국제개발협력을 위해, 투입되는 재원의 규모가 적정한지, 사업의 효과성은 높은지, 효율적 추진체제를 위하여 어떠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다양한 수준의 기관과 개인들이 참여한 글로벌 대화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WB는 2007년 창립 이후 열두 번째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저희는 ‘교육을 통한 빈곤 퇴치’라는 목표를 위해 교육개발협력 분야에서 차근차근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지난 12년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EWB의 발걸음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단 년도 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갠아(GAPA in Burkina Faso) 사업은 이제 지속적으로 자력 운영이 가능한 모델로의 이행 과정 중에 있으며, 광명시를 비롯한 다양한 국내/외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으로써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전문가 단체로서 개발컨설팅에 주력하여 UNDP 지원 아프리카 3개국 교육정책 동료평가 사업, 세네갈과 에티오피아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였고,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삼성전자로부터 우수단체상을 수여 받았고, 상금을 모두 현지의 양계사업에 다시 투입하여 장차 양계협동운동(MARCA)의 출발점을 삼았습니다. 18년 가장 중요한 사업은 일가재단과 같이 일가가나안 지도자 연수원(Ilga Canaan Center, ICC, 불어로 CFICA9)을 착공한 것입니다. 내년 초 일가관은 개관합니다. “교육자 교육(Educating educators)”을 통하여 교육, 재생에너지(물, 태양광발전), 축산, 농업, 사회 분야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을로 가서 현지인을 가르치려는 장기 사업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UN 경제사회이사회가 인정하는 특별컨설턴트 지위도 부여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서 금년 사업과 연구를 위해 일한 사무국 모든 분과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이러한 노력과 변함없는 지지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교육을 통한 빈곤퇴치의 주역으로 활동하는 우리 교육가들이 무한히 자랑스럽습니다.

사단법인 국경없는 교육가회  
대표 김기석



# 2018 국경없는 교육가회 연간보고서

## 목 차

<b>I. 활동보고</b> .....	5
1. 광명시 시민교류 봉사단 부르키나파소 방문 .....	6
2. 삼성-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 꿈’ “MARCA” 사업 .....	8
3. 일가 가나안 회관 건립 사업 .....	9
4. 케냐 교육 도서 지원 사업 .....	10
5. 케냐 모고티오 지역 도서관 도서 기증 .....	12
6. 후속세대 양성사업 .....	13
가)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 2018 개최 .....	13
나) 2018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 후속활동 “배워주미” 6기 출범 .....	18
<b>II. EWB 소식</b> .....	21
1. 김기석 대표 교육부 장관 2018 올해의 교육인 상 수상 .....	22
2. 국경없는 교육가회 창립 11주년 기념식 개최 .....	24
3. 국경없는 교육가회 제 17회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참가 .....	25
4. 국경없는 교육가회-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MoU 체결 .....	27
5. 2019 삼성-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 꿈’ 장기사업 선정 .....	28
<b>III. 2018년 정산 세입 세출 보고</b> .....	31
<b>IV. EWB 소개 및 후원 안내</b> .....	35
<b>V. 2018년 후원자 명단</b> .....	39





# I. 활동보고

### 1. 광명시 시민교류 봉사단 부르키나파소 방문

2018년 7월, 국경없는 교육가회와 광명시 “글로벌 학습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시민 봉사단은 부르키나파소의 시골 여성들에게 비누 제작과 포장 기술을 전달하기 위해 부르키나파소 싸바(Saaba)지역으로 떠났다. 광명시는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살아가는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오래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사업 시행의 범위를 넓혀 국제사회의 주민들에게 기여하기 위하여 “글로벌 학습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EWB와 함께 부르키나파소 주민들을 돕기에 힘쓰고 있다. 특별히 이번 여름의 방문에서는 “비누 제작” 교육과 실습이 주제였으며, 이를 위해 4명의 광명시 비누제작 전문가들이 함께 하였다.



광명시 문화교류 시민봉사단의 모습

광명시 시민 봉사단은 먼저 국내에서 제작된 샘플을 가지고 가서 현지 주민들과 함께 부르키나파소에서 풍부한 재료인 모링가, 히비스커스, 시어버터 등을 어떻게 활용하여 비누를 제작할 수 있을지 논의하였으며, 식료품점과 전통시장을 둘러 비누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비하였다. 재료를 구매한 다음날 시민봉사단은 싸바 지역의 광명세종문화센터를 방문하여 마을의 여성들과 모링가 비누 만들기 수업을 개최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시어버터와 모링가를 활용하여 비누를 제작하는 법을 배웠으며, 저울을 사용하여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도 이어졌다. 강의를 끝난 다음날에는 전날 배운 내용을 토대로 비누를 제작하였는데, 질 좋은 비누가 완성되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비누 제작 기술을 알게 되었지만 비누를 팔 수 있는 판로는 아직 찾지 못했다는 과제가 남았는데,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앞으로도 계속 부르키나파소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전달하고 비누를 팔 수 있는 판로 또한 개척하여 부르키나파소 주민들의 성장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할 계획이다.



비누를 제작 중인 부르키나파소 주민들과 EWB 파견 간사 (위)  
완성된 모링가와 시어버터 비누들 (아래)

## 2. 삼성-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 꿈’ “MARCA” 사업

2018년 1월에서 12월까지, 삼성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은 MARCA “양계활동지원 및 기술교육을 통한 부르키나파소 농민 여성의 소득증대 역량강화 프로젝트”가 시행되었다. MARCA는 부르키나파소 3개 마을의 47개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문해교육을 통과한 주민들에게만 MARCA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MARCA 사업은 2017년까지 시행되었던 GAPA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GAPA사업이 문해교육과 소액대출에 초점을 맞추어 주민들이 문해력 상승과 빈곤 탈출에 주력했다면, MARCA 사업은 문해교육을 마친 주민들이 양계 사업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양계사업은 다른 가축사육 사업에 비하여 초기자본이 적게 들고 전담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으며, 농업 등 기타 본업이 있는 경우에도 부담 없이 추가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양계는 짧은 사육기간 이후 바로 판매가 가능한 사업으로서, 빠른 현금전환으로 이어져 수익 증대에 효과적이며 판매 시 연간 극빈한계 기준인 700 달러보다 높은 1,000 달러의 수익을 창출 가능하다. 또한 많은 문화권에서 몸집이 작은 닭을 사육하는 것은 여성의 몫으로 여겨지는데, 양계 사업에 참여한 여성들이 판매한 수익을 가족을 위해 재투자하여 가족 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 권리 신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때문에 국경없는 교육사회는 GAPA의 후속 사업으로 양계 사업인 MARCA를 고안하였으며, 2018년 삼성-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2,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부르키나파소에서의 양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MARCA는 양계 협동조합의 형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극도로 가난한 농민 역량의 강화에 성공적인 전례를 다수 가지고 있는 모델로서, 양계 기술 보급과 함께 협동조합의 기능 강화를 통해 개별 농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핵심 과제를 공동체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고 자립하도록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이 일반 양계사업과 차별화되는 요소이다. MARCA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스스로 지난 2년간 양계의 다양한 변수 속에서 공동으로 사료 제작 혹은 조달, 병아리 공동구매, 질병관리 정보공유, 공동판매를 시도하는 등 협동을 통해 생산 가격을 낮추는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양계 사업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사회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발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공동체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 3. 일가 가나안 회관 건립사업



아직 지어지고 있는 단계에 있으나 거의 모습을 갖춘 일가 가나안 회관의 모습. 일가 재단, 국경없는 교육가회 그리고 부르키나파소 현지 시민단체인 APENF의 노력으로 지어지고 있는 일가 가나안 회관은 앞으로 농업 기술 교육과 직업 교육을 위한 교육 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다.

#### 4. 케냐 교육 도서 지원 사업



키레무 초등학교 도서 기증 사진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2014년부터 케냐의 비영리기관인 빌리지 트러스트(The Village Trust, 이하 TVT)와의 협력 아래 케냐 지역 초·중학교 교육지원 사업을 지속해왔다. 도서 기증은 교육지원 사업의 핵심 파트로, 영어와 스와힐리어로 기록된 교과서를 비롯한 다양한 서적들이 2014년, 2016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지원되었다. 2014년과 2016년에는 각각 아홉 곳과 두 곳의 초·중 학교에 도서 기증이 이루어졌으며, 올해인 2018년에는 메루 지역 학교 한 곳과 모고티오 지역 도서관 한 곳에 도서가 기증되었다.

케냐는 아프리카 동부 적도 지역에 위치한 국가로 열대 해안 지대부터 사바나 초원, 고산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기후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창립 초기부터 케냐에서 타당성 조사, 교사연수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그 중 특히 메루(Meru) 지역의 빈곤지역 학교 도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메루 주(州)는 수도 나이로비에서부터 차로 5 시간 떨어진 산악지대에 위치해있으며, 산골짜기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외진 곳에 있고, 아직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과 학교가 많다. 올해는 메루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해 도서기증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국제 개발협력단 단장으로 활동하셨던 김주훈 선생님과 “YES(Youth Educational Support)” 팀의 청소년들이 함께 펀드레이징 활동을 진행, 후원하였다.

이번 도서 기증 사업을 위해 케냐를 방문한 국경없는 교육가회 직원들과 YES 팀의 청소년들은 도서 기증 대상 학교로 선정된 키레무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의 학생들, 학부모들, 교직원 분들을 만나고 협력

파트너 기관 TVT 직원분들과 인사를 나눴다. 키레무 초등학교는 동 티가니아(Tiganis East)에 위치한 학교로 많은 학생들이 빈곤층에 속해있다. 특히 건기 때는 물과 음식이 부족해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는 한다.

국경없는 교육가회와 YES 팀은 키레무의 1~8학년 학생들을 위한 교재 및 도서 총 105권을 제공하였으며, 교내 모든 여학생들이 5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생리대도 함께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협력 파트너기관의 교육 센터 내 도서관에도 100여권이 넘는 다양한 교재와 도서가 제공되었다. TVT Community Library 에서는 매년 인근지역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해 교육센터를 개방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모금자 명단

김주훈 / 이연주 / 임동희 / 최명준 / 이재혁 / 윤성은 / 최유나 / 배유비  
유성현 / 김은석 / 서성한 / 윤영준 / 유승걸 / 배준기 / 배나현

활동보고

케냐 모고티오지역 도서관 <Haga Kinoyo Library> 도서기증

지난 2018년 11월 중순, 국경없는 교육기회는 5,700여 불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하여 케냐 나이로비에서 200km 가량 떨어진 모고티오 지역의 하가 키노요 도서관(Haga Kinoyo Library)에 도서 350여권을 기증했다.

모고티오는 케냐 나쿠루 주와 바링고 주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가 키노요 도서관은 지역의 유치원생(PP1-PP2), 초등학생(1-8학년), 중고등학생(1-4학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다. 현재 인근 초등학교 여섯 곳과 고등학교 다섯 곳이 이곳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학기 중에는 매일 평균 50여명 정도가 도서관을 방문하고, 방학 중에는 70여명 정도의 학생들이 방문한다. 케냐에서 근무하는 한인 선교사 한 분과 동네 주민들이 이 도서관을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관리책임자와 도서관 사서 및 봉사자들이 도서관의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도서관 내에는 영어와 스와힐리어 이야기책,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과서, 위인전 및 신앙 서적 등 다양한 도서들이 약 1600여권 정도 비치되어있다.



도서 기증식(위), 새로 들어온 책들을 보고 기뻐하는 아이들(아래)



## 5. 후속세대 양성 사업

### 국경없는 교육가회, 인천대학교와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 2018 with INU” 개최

2018년 6월 27일~29일, 국경없는 교육가회와 인천대학교 사범대학이 주관하고, 일가재단이 후원한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 2018 with INU”가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는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후속세대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차세대 교육개발협력 전문가들에게 국제사회에서의 교육 부문 협력 및 지원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지식을 습득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참가자들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무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국제교육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현장 감각을 익히고 지구촌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본 캠프는 2008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이 9번째 캠프이다.

첫째 날은 조별 구성원들이 어색함을 풀고 서로 점차 알아가는 레크레이션 시간과, “국제교육개발 협력의 이해”를 주제로 한 인천국제개발협력센터의 권태면 센터장의 강의로 시작되었다. 뒤이어 이어진 “영화로 국제개발협력 알아보기” 시간에는 이주여성을 위한 문화경제 공동체 에코팜므 박진숙 대표가 강사로 함께 해주셨고, 참가들은 강사와 교육개발협력에 관련된 영화를 보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함께 시청한 영화는 <퍼스트 그레이더>라는 작품으로, 84세에 처음 글을 배우기 시작한 케냐의 “마루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참가자들을 낯은 나이에 초등 학교에 다니겠다는 마루게 할아버지의 우스꽝스러운 열의와 고집을 보고 함께 웃기도 하고, 마루게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글을 배우고 싶어 했는지를 알게 된 후 함께 울기도 했다. 영화를 보고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교육과 인권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진 참가자들이 많았던 만큼 활발한 발표와 나눔이 이어졌다.

이어 둘째 날에는 De' way 임종진 대표 컨설턴트의 “프로젝트 사업 기획 및 관리” 강의를 첫 시간으로 배정 되었다. 본 강연은 이론 강연과 조별 실습으로 구성이 되었다. 이론 강연 시간에는 참가자들이 이해관계자 분석부터 문제나무, 목표나무, PDM(Project Design Matrix)에 이르는 사업의 기획 및 관리에 대해 배울 수 있었으며, 조별 실습 시간에는 학생들이 강사의 도움아래 국가별 문제들에 대하여 문제나무를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 사전 설문조사 시, 많은 참가자들이 실제 개발협력사업이 어떻게 기획되는지가 궁금하다며 본 강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던 터라 3시간의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열의가 대단했으며, 강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본인들이 마지막 날 조별발표 때 기획하고 발표할 사업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고민 해볼 수 있었다.

점심식사를 마친 후에는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이다영 팀장이 진행하는 “신무역 게임” 진행 되었다. 신무역 게임은 각 팀이 서로 다른 규모의 자원을 분배 받아 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을 진행하는 게임이다. 게임을 처음 시작 할 때는 모두가 가장 강하고 부요한 팀이 되려는 야심을 갖고 게임에 임하지만, 게임의 말미에는 각자가 소유한 자원의 한계에 따라 부유하게 시작한 팀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하게 시작한 팀은 더 가난해지기만 하는 현실을 깨닫게 된다. 게임 중간 중간에는 실제 무역 시장처럼 자원 가격을 두고 거래가 오가기도 하고, 다른 부유한 팀의 식민 지배를 받는 팀도 생긴다. 게임에 참여한 각 참가자들은 위 게임을 통해 불공정한 국제 무역시장을 몸소 체험해볼 수 있었고, 경제 성장에 있어 소유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이 한계로 불리한 시작점을 가졌던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으로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박수정 사무국장과 이화여대 성과관리센터의 홍승연 사무국장이 차례로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나갔다. 박수정 사무국장은 다년간 교육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한 생생한 경험들을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다. 박 사무국장은 에티오피아에서 진행된 “극빈 여학생의 자립역량강화 사업”과 부르키나파소에서 진행된 “GAPA(Global Alliance for Poverty Alleviation) 사업”을 예시로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전해주었으며, 직접 사업을 진행해 보았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충과 보람들을 들려주었다. 홍승연 사무국장의 강의는 개발협력 사업 중에서도 사업의 성취도를 판단하는 “성과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홍 사무국장은 개발협력 사업에서 사용되는 지표들과 성과 평가법들을 학생들에게 전해주었으며, 개발협력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떠나는 것,” 곧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사람들이 떠나도 그곳의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 1, 2 강연 모습 (위 박수정 EWB 사무국장, 아래 홍승연 이화여대 성과관리센터 사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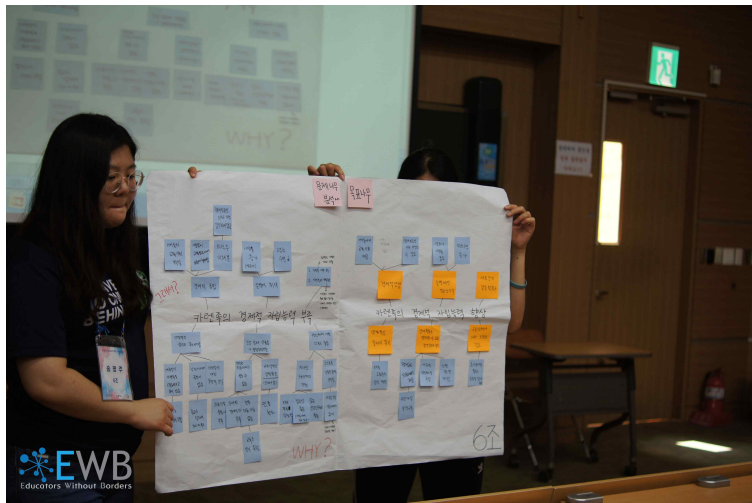
둘째 날 마지막 순서로는 “국가 탐구”와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개요안 만들기” 활동이 진행되었다. 국가 탐구 시간에는 조별로 다른 교실에 방문해서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 스태프들이 진행하는 국가별 소개를 들었다. 스태프들은 각 국가의 상황을 더 실감 나게 하기 위해 여러 활동들을 함께 준비했는데, 스태프들의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구슬 팔찌를 만듦으로 가나의 아동 노동 착취 현장을 체험해보게 하거나, 일부의 학생들은 편한 의자에 앉고 일부의 학생은 불편한 맨바닥에 자리를 마련하여 미안마의 계층 간 불평등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각 국가 스타일의 이름을 만들어보거나 그곳의 특산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등의 활동들이 준비되었다. 국가 탐구 활동을 끝낸 조들은 조별로 자신들이 선택한 국가의 문제를 분석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을 구상해보았는데, 참가자들은 주어진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밤늦게까지 자발적으로 열린 토론과 활동을 이어나갔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현장 실무자들과의 토크콘서트 및 멘토링 섹션이 진행되었다. 장기 해외 파견 경험 및 현재 개발협력 분야에서 종사 중인 5명의 현장 실무자들을 초청하여 참가자들과 함께 대화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프의 패널로는 강도욱 월드비전 혁신사업채널 팀장, 공선주 ADI 커뮤니케이션 팀장, 정지현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교육운영 2팀, 조희경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해외사업부, Bethel 한국외국어대학교 아프리카연구소 연구원이 함께하였다. 참가자 대부분이 국제개발협력 쪽으로의 진로를 희망하고 있던 터라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고, 모든 질문에 대답하기에는 토크콘서트만으로 시간이 다소 부족했기에 희망 멘토별로 새로 조를 구성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추가적인 멘토링 및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문부터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까지 다양한 질문들이 오고 가며 그간 진로에 관해 가졌던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토크콘서트 사진

셋째날 오후에는 참가자들이 그 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기획한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개요 발표회가 있었다. 지난 2박 3일간의 시간들을 통해 교육개발협력에 대해 배우고 각 국가별로 탐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학생들은 가나, 미얀마, 파키스탄의 빈곤 차별 이슈에 대한 개발협력 프로젝트 구상안들을 발표하였다. 참가자들을 각 국가의 이슈에 대한 문제나무를 만들어 어떤 것이 문제의 핵심 원인을 밝혔으며, 그 동안의 캠프를 통해 배운 내용들을 적용한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발표하였다. 각 조별로 발표를 한 뒤에 학생들은 각 조가 구상한 프로젝트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는데, 반짝이는 아이디어들과 날카로운 지적들이 발표자들과 청중 사이에 오고 갔다. 또한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간사들은 교육개발협력 전문가로서 각 프로젝트를 보완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위 활동은 참가자들이 캠프를 통해 배운 내용들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직접 디자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개발협력 프로그램 개요안 발표회 모습

마지막 순서로는 수료식과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캠프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다양한 미션 결과들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증정하였고, 이번 캠프를 후원해준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총장님과의 만남을 통해 국경없는 교육가회와 캠프 참가자들의 감사를 전하는 시간도 있었다.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캠프 후속활동인 “배워주미”에 대한 안내를 통해 이후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며, 캠프가 일회성으로 머무르지 않고 참가자들끼리의 네트워크를 계속 지속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캠프 참가자들이 함께 단체사진을 촬영하였고, 캠프 진행 요원들이 참가자 개개인에게 수료증을 나눠주는 것을 끝으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 됐다.

3일간 다소 빠빠하게 진행된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참가해 준 미래의 청년교육가분들 덕에 캠프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 후속 만족도 조사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을 이룬 강의와 실습 활동으로 구상된 캠프에 만족했다는 의견을 주었으며 개발협력분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조사에서 발견된 캠프의 아쉬운 점으로는 캠프의 스케줄이 다소 여유가 부족했던 것과 진행 스태프 간의 전문지식 격차로 참가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때때로 미흡했던 점이 꼽혔다. 국경없는 교육가캠프는

매년 진행되는 캠프인 만큼 부족한 점을 수정, 보완하여 더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교육개발 협력 분야를 집중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의 교육개발협력 전문가로 도약할 수 있는 진입로가 되어줄 계획이다.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 2018 단체 사진

## 활동보고

### 2018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 후속활동 “배워주미” 6기 출범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 2018이 끝난 후 그 후속활동인 배워주미 6기가 지난 8월 27일 오리엔테이션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배워서 준다/나눈다'는 의미에서 착안한 '배워주미'는 국경없는 청년교육가 캠프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스터디 그룹이다. 2012년도의 캠프 때 처음으로 배워주미 1기가 결성되었으며 올해로 제 6기의 배워주미 멤버가 구성되었다.

이번 배워주미 6기는 올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개발협력에 관한 학습 및 토론부터 ODA자격증 시험 대비, 개발협력 사업관련 영화 감상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워주미 6기의 총 인원은 4명이며, 스터디원들끼리 모임을 진행하되 EWB가 활동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배워주미 6기 1회 모임 진행 모습







## II. EWB 소식

김기석 대표 교육부 장관 2018 올해의 교육인 상 수상



2018.01.26 여성신문 기사 김기석 EWB대표

김기석 EWB 대표가 지난 10년간 국경없는 교육가회를 통해 지구촌 곳곳 성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도와 세계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성신문이 주최하는 2018 학부모가 뽑은 교육브랜드 대상 ‘교육부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8 교육인상’ (교육부장관상)은 바람직한 교육철학의 실천과 교육환경 조성에 공로가 인정된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올해 13회째인 ‘학부모가 뽑은 교육브랜드 대상’ 시상식은 지난 1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열렸다. 김기석 대표는 “이 상은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가능성을 보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국경없는 교육가회(EWB·Educators Without Borders)”는 국외 교육 원조를 표방한 국내 첫 비영리 단체다. 교육을 통해 빈곤과 질병으로 허덕이는 저개발국가 시민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세워졌다. 김기석(70) 대표는 지난 2007년 현지 전문가, 교육자들과 함께 국경없는 교육가회를 만들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어느새 10년이 됐다. 특히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부르키나파소에 5개의 문해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역 곳곳으로 지원을 늘리고 있다. 이곳에서 김 대표는 주민들에게 문해교육을 제공하고 기술교육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김 대표는 1972년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85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이라는 한 길을 걸었다. 그는 가나안농학교 개척자인 일가 김용기 선생의 둘째 사위로, 김찬란 서울여대 교수의 남편이다. 가나안농학교에서 농촌지도자 교육을 받는 등 농업에 대한 관심도 컸다. 그러던 그가 정년퇴임 후 서아프리카로 눈을 돌린 것은 우연히 부르키나파소 아이들을 만나면서다. 그는 가난으로 인해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던 아이를 ‘교육 입양’했다. 그 아이는 의과대학 진학의 꿈을 키울 만큼 성장했다.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정부나 자치단체, 기업의 지원금을 토대로 저개발국 주민들의 빈곤 탈출을 돕고 있다. 읽고 쓰는 문해교육을 통해 글을 깨친 주민들에게 비누 만들기와 양계 같은 기술 교육과 소액대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유도한다. 특히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는 단체가 지난 10년간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이곳은 60~70년대 한국처럼 가난하지만 교육열이 뜨겁다. 하지만 현지 부족어가 60개에 달하고 공용어인 불어를 못하는 이들이 많다.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이들에게 현지 부족어를 가르치고 있다.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문해교육을 받았다. 그 가운데 학생에서 교사가 된 이들도 있다. 꾸준한 문해교육 활동은 지난 2014년 유네스코(UNESCO)에서 수여하는 세종대왕 문해상(UNESCO King Sejong Literacy Prize)을 한국 기관 최초로 받으면서 그 효과가 입증됐다. 유네스코 세종문해상은 문해를 통해 발전에 기여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특히 김 대표는 여성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저개발국가는 뿌리 깊은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교육과 노동시장, 공적영역에서도 불평등이 심각하다. 특히 돌봄 노동에 발이 묶여 교육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김 대표는 “여성이 문해교육과 기술교육을 받고 돈을 벌게 되면 집 안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글을 깨우친 여성들에게 소액의 자금을 융자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는 일이다. 한 가구당 최대 100달러씩 빌려주는데 대출금 회수율이 95%에 이른다고 했다. 이 ‘가파(GAPA, Global Alliance for Poverty Alleviation) 프로젝트’가 세계로 전파되는 성공적인 ‘한국형 원조모형’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목표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비누 제조 기술을 익힌 부르키나파소 여성들이 직접 만든 비누를 한국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짜봉 부르키나베’라는 브랜드명도 정해 판로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 대표는 국제개발협력을 “산파술”에 비유했다. 그는 “산모가 아기를 낳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산파의 역할인 것처럼 저개발국가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주는 것이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국경없는 교육가회 창립 11주년 기념식 개최



EWB 창립 11주년 기념식 참석자 단체 사진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2007년 5월 15일에 창립되었다. 2018년 5월 15일,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창립 11주년을 기념하여 서울대학교 호암 교수회관 1층 라일락홀에서 국경없는 교육가회 창립 기념식이 열렸다. 총 2부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기석 대표, 박수정 사무국장, 이다영 팀장과 임희선 간사가 진행을 맡았으며, 지난 11년간 국경없는 교육가회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해준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이사진인 김주훈 이사, 정진화 이사, 이무현 이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 1부에서는 국경없는 교육가회 작년 사업들의 예결산과 사업성과를 살펴보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어떤 사업들이 지속되고 또 새롭게 착수될지 보고하며 이사회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국경없는 교육가회의 2017년 한 해를 기록한 영상을 상영하였으며, 이 시간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조언과 응원을 들으며 기념식을 마무리 하였다.

### 국경없는 교육가회 제 17회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참가

광명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



광명시민들에게 글로벌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설명 중인 이다영 EWB팀장

지난 9월 15일, 국경없는 교육가회가 광명시 시민교류 봉사단과 함께 제 17회 광명시 평생학습 축제에 참가했다. 올해 17회를 맞이한 ‘광명시 평생학습축제’는 마을을 구성하는 평생학습 유관 기관단체, 학교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아동부터 성인까지 전세대가 일상에서 평생학습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습문화를 조성하는 축제의 장이다. 이번 축제는 ‘나날이 배움, 학습에美치다!’라는 주제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명시 곳곳에서 개최되었다.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광명시 평생학습원의 후원을 받아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 광명시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축제에 참여하여 14시부터 18시까지 시민체육관 대리석광장에서 부스를 운영하였다.

축제 부스는 글로벌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설명하는 코너와 비삽 주스를 시음하는 코너, 리베칭 비누 만들기 코너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광명시 평생학습원과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2013년부터 인연을 맺어 왔으며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광명시 평생학습원의 후원을 받아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5개 마을 내 광명세종문화센터에서 비문해 농촌 주민 대상 현지어 문해교육을 직접 진행한다. 소득 창출과 직접적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현지 특성화 직업 기술교육(비누 만들기, 돛자리 제작, 땅콩도넛 만들기, 채소경작, 양봉, 제빵, 염색, 닭/양/돼지 사육, 마케팅 교육 등)과 더불어 연극을 통해 문해 교육 참여를 장려하고, 말라리아와 에이즈 등

질병 검사와 치료방법, 조혼폐지, 위생, 가족계획 수립 등의 주제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리베칭 비누 만들기를 설명 중인 광명시 시민교류 봉사단원

특히 지난 7 월에는 광명시 문화교류 시민 봉사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현지에서 8박 10 일간 현지 주민들과 교류하며 직업 기술 교육을 나누고 돌아왔다. 이들은 현지 전통시장과 마트, 부티크 등을 방문하여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자체 조달이 가능한 비누 재료를 물색하고 비누 판매 현황 조사를 통한 현지 판로와 마케팅 방안도 직접 모색했다. 또한 부르키나파소 2 개 마을을 방문하여 비누공예, 포장공예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현지 사업 참여 여성들이 부가가치를 높여 수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국경없는 교육가회 간사 송 윤씨는 이번 부스행사를 통해 “광명시 평생학습교육원과 국경없는 교육가회가 진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사업이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광명시 평생학습 축제 부스에는 평소 부르키나파소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이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을 생소하게 여겼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여 해당 국가의 문화를 새롭게 접하고 이해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 국경없는 교육가회-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MoU 체결

국경없는 교육가회와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가 지난 12월 20일 각 기관의 상호 협력 하에 개발도상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였다.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는 개발도상국에 적절한 과학기술을 보급, 개발할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을 통하여 과학기술이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확산되며,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단체이다.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는 현지의 대학, 연구기관, NGO등과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적정 기술에 관한 국제교류와 개발협력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자들이 중심이 되어 개발도상국 교육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컨설턴트인 국경없는 교육가회와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의 협약을 통하여, 상호발전, 우호증진 및 개발도상국 대상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 기관의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대한민국의 교육자들이 중심이 되어 개발도상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일하기 위해 설립된 국경없는 교육가회와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의 협약을 통하여, 두 기관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학술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등을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고, 앞으로 공동 연구 및 지식 공유, 학술 세미나 및 컨퍼런스의 공동개최, 지역개발에 대한 연구와 자료발간 등에 대한 정보 교환, 개도국 내 과학기술 관련 교육 지원, 개도국 내 인적 네트워크 공유 등의 분야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 2019 삼성-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과 꿈' 장기사업 선정

국경없는 교육가회(EWB)는 삼성전자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나눔과 꿈' 지원 다년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나눔과 꿈' 사업은 2017년 처음으로 100억 원 규모로 50여개의 기관을 선정한 것에 이어 지난달 28일 2019년도 사업을 이끌어갈 65개 기관을 선정했고,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2017년에 이어 2019 다년도 사업 수행기관으로써 참여하게 되었다. '나눔과 꿈' 사업은 지난 6월 제 3회 사업 공모 접수 이후 총 1106여개의 기관이 응모해 최종 경쟁률 17:1을 기록했다. 선정된 65개의 기관은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지난 12월 2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에서는 새롭게 선정된 65개 기관 선정 발표식 및 2019년 우수사업 수행기관 수상식이 진행됐다.



선정단체 단체사진

이 사업에는 지난 2017년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내 농축산업분야 전문개발협력단체인 사단법인 굿파머스와 부르키나파소의 비형식교육증진협회(APENF;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Non-formal Education), 일가재단이 컨소시엄 기관으로 함께 참여한다.





선정식에 참여한 이지화 EWB 간사

부르키나파소에서 지난 11년간 문해교육과 직업기술교육, 소액대출, 양계사업을 통해 자립역량을 키우는데 힘써온 김기석 대표는 "지난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한다면 3년 뒤에는 반드시 부르키나파소의 주민들이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나눔과 꿈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음이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이지화 간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소한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국경없는 교육가회는 "오는 2019년 기존 참여자를 포함해 사업을 진행하고 기존 참여자에서 25% 확대한 신규참여자를 더 선발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양계 기술 개발과 향상을 위해 양국 전문가 지식공유를 하고 부화기와 분쇄기를 보급함과 동시에 양계를 통한 수익 증대와 양계조합 운영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III. 2018 년 정산  
세입/세출 보고**

2018년 정산 세입 세출 보고

2018년 정산 세입 세출 보고

1. 2018년 결산 보고

단위: 원

2018년 수입	2018년 지출	당기수익
332,295,602	329,224,164	3,071,438

2. 2018년 수입 결산

단위: 원

과목				비고
관	항	목	금액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3,453,627	
후원금	후원금		31,704,629	
	소계		35,158,256	
사업수입	사업수입	광명시-BF 평생학습관	72,000,583	
		나눔과 꿈	21,169,637	
		ICC 건립기금 모금	120,113,504	후원금의 성격을 가진 사업 수익
		청년인턴	29,660,170	
		청년캠프	6,495,473	
		케냐도서기증	3,259,735	
소계		252,699,102		
기타수입	인건비 (목적후원 및 일자리 안정 자금)		44,438,244	
	소계		44,438,244	
합계			332,295,602	

### 3. 2018 년 지출 결산

단위: 원

과목				비고
관	항	목	금액	
협력사업	사업활동비	광명시-BF 평생학습관	70,773,040	
		나눔과 꿈	21,144,775	
		ICC 건립	120,103,201	
		청년인턴	29,666,170	
		청년캠프	6,485,159	
		케냐도서기증	1,601,280	
	소계			249,773,625
경영기획	법인운영비	인건비	44,438,244	
		사무국운영비	34,110,155	
		세금	902,140	4대 보험 비용 제외
	소계			79,450,539
합계			329,224,164	



## IV. EWB 소개 및 후원 안내

## EWB 소개 및 후원 안내

### 국경없는 교육가회 (Educators Without Borders, EWB)

(사) 국경없는 교육가회(EWB)는 한국의 교육자들이 중심이 되어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기구입니다. 이에 EWB는 국제사회는 물론 한국사회의 개도국 교육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개도국 교육개발 프로젝트
- 국제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연구
- 국제교육개발협력의 후속세대 양성

### 후원 및 후원 문의

#### 1. 후원계좌

농협) 079-01-468104 / 국민) 371101-04-038375 <국경없는 교육가회>

2. 회원가입 및 문의: <http://www.ewb.or.kr> / [ewb@ewb.or.kr](mailto:ewb@ewb.or.kr)

3. 후원물품 기부 및 문의: 02-885-6422 / [ewb@ewb.or.kr](mailto:ewb@ewb.or.kr)

후원 및 기부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V. 2018 년 후원자 명단

2018 년 국경없는 후원자 명단

(만민교육 1,000만원 이상, 빈곤퇴치 100만원 이상, 문맹퇴치 1,000원 이상)

**만민교육 후원자**

노임환(엠디그린), 다비육종(윤희진)

**빈곤퇴치 후원자**

김진환(학지사), 손영우, 김기석, 모선일, 이병훈, 송은미

**문맹퇴치**

최재기, 차승주, 이기정, 문삼은, 김태운, 허병부, 정복희, 전종갑, 김성열, 김태석, 우병열, 박에스더, 류방란, 김성식, 이재찬, 안상길, 배정현, 주현일, 조정아, 조상식, 정미란, 정진화, 김운호, 김현숙, 김명진, 김준엽, 고희은, 이차권, 이광수, 이정숙, 이향규, 이선정, 이정아, 이한별, 이현정, 정재환, 이윤복, 남영선, 신선미, 양길석, 양은성, 양병표, 어영기, 정운찬, 고소향, 장한결, 최병혜, 도수환, 김지자, 박수정, 민선영, 이다영, 이범희, 정해철, 문운식, 최덕환, 김동하, 이명창, 정수지, 황복수, 이은정, 주님의교회, 김애련, 이성숙, 박태우, 이호준, 권기, 김충실

(사)국경없는 교육가회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국경없는 교육가회 2018 연간보고서

펴낸날 2019년 3월 1일

펴낸곳 국경없는 교육가회

펴낸이 김기석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59길 삼모스포렉스 1014호

문의 국경없는 교육가회 경영기획부

전화 02-885-6422

이메일 [ewb@ewb.or.kr](mailto:ewb@ewb.or.kr)

웹사이트 [www.ewb.or.kr](http://www.ewb.or.kr)



